

“신촌 봉원사 재산 관리는 조계종 권한”

대법원, 태고종 패소 원심 확정

대표적 조·태 분규 사찰인 서울 신촌 봉원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조계종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불교계는 1954년부터 종단 주도권을 놓고 비구와 대처가 대립하다 정부 조정으로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을 구성했다.

봉원사는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했지만, 1962년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됐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은 이에 반발해 1970년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때부터 봉원사는

명이가 조계종이면서 태고종에서 계속 점유·관리했다. 포교도 태고종 임명 주지들이 했다. 조계종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주지 14명을 임명했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는 못했다.

태고종은 조계종이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 모두 패소했다.

1심은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을 마친 이후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 관청에 등록됐다”며 “조계종에 봉원사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2심도 태고종의 봉원사 점유를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해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회장 후보, 자민·육문 스님 등록

자민 스님 기호 1번·육문 스님 기호 2번 배정

전국비구니회 11대 회장 후보 선출이 양 강구도의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

10월 1일 현재 전국비구니회에 접수된 후보는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자민 스님(천안 연대선원)과 육문 스님(군위 법주사 주지)이다.

후보 마감일은 10월 2일이며 오는 10월 12일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열린다.

자민 스님이 가장 먼저 후보 접수를 완료했다. 자민 스님은 9월 30일 오후 접수를 완료해, 기호 1번을 배정받았으며, 육문 스님은 10월 1일 오전 접수해 자동적으로 기호 2번을 받았다.

차기 비구니회장 후보로 지속적으로 마감에 올랐던 자민 스님은 현재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본지가 마감 직전까지 자민 스님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선거대책 본부도 없고, 제자들이 선거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사항도 선거 당일 대중 스님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열린비구니모임 측이 추대한 육문 스님의 행보는 매우 적극적이다. 9월 16일 군위 법주사에서 추대식을 열고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여왔다. 10월 1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난 후에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육문 스님 “비구니회 변화” 공약

육문 스님이 제시한 공약은 △일하는 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승단의 위상과 권익 향상 △비구니 스님의 노후복지 증진 △비구니승가 인재 육성에 기여 △정당한 수행자의 자제로 승가 화합 등의 5대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후보 접수 마감일 앞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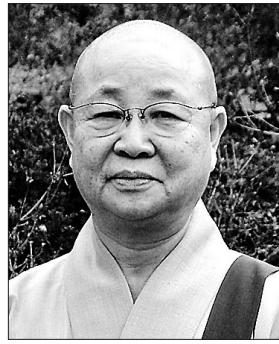
유력 후보 2인 모두 등록

12일 총회서 선거로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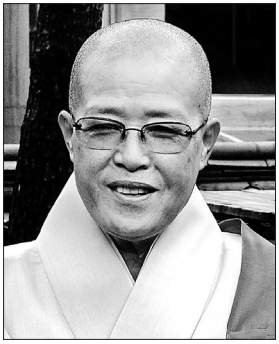
주요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변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구니회의 회칙 개정이다. 이에 대해 육문 스님 선거대책본부는 “임의적이고 애매한 회칙 조항을 명쾌하게 개정해 운영원 구성이나 총회의원 선출과 자격요건 등 조직 구성과 운영 전반에 합리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 조직 개편을 비롯해 대중 여론을 반영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비구니회 재정 증대, 비구니회관 효율적 활용 방안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전국비구니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비구니회 임의단체 지위 탈피 △비구니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법령 개정 △비구니 역량 발휘 지원 △비구니 원로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기호1번 자민 스님은 1939년 10월 부산 출생으로 법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1954년 사미니계를, 1962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7, 8, 9대 중앙총회의원과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천안 연대선원에 주석 중이다.



기호2번 육문 스님은 1946년 충남 서산 출생으로 1962년 사미니계를 1973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1대 중앙총회의원과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백운암 회주와 군위 법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육문 스님 선거대책본부는 “현재 전국비구니회는 임의 단체이다. 종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법적 기구이자 종단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전국비구니회 산하에 공식기구로 원로위원회를 구성해 비구니 승단 발전의 지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구니 스님이 노후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권역별 비구니 노후 수행도량 설치 △지회별 전담 의료기관 지정 △비구니 스님을 위한 다비장 건립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비구니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인재 DB 구축 △교육연수프로그램 강화 △사회성 강화 교육 시행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육문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에 임하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육문 스님은 “지난 1년 간 열린비구니모임의 노고는 이루 다할 수 없이 컸다”면서 “앞으로 열린비구니모임과 함께 끝까지 비구니의 발전과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비구니모임은 오래전부터 화합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모두 무위로 그쳤다”면서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육문 스님 선거대책본부 사무총괄위원 혜조 스님은 “아직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식 제안을 받지도 한 적도 없다”면서 “실무진은 모르겠지만 후보 간 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육문 스님 선거대책본부는 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t0179@hyunbul.com

진흥원 “불교방송 지원 아끼지 않겠다”

김규철 이사장, 30일 선상신 사장 시무식서 강조



BBS불교방송은 9월 30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철 이사장을 비롯한 불교방송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선상신 신임 사장에 대한 시무식을 가졌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새로운 사장을 맡은 BBS불교방송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9월 30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철 이사장을 비롯한 불교방송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선상신 신임 사장에 대한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 자리였던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규철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의 고귀한 말씀을 박물관에 박제된 채로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BBS불교방송이 나눔의 기쁨과 향기로운 방송이 되기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방송 이사회의 역할을 통한 불교방송의 재정 확보와 사육 건립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 해왔다”면서 “선상신 신

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올리는 특별 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선상신 BBS불교방송 신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방송 개국의 의미와 역사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은 대한불교진흥원과 함께 불교방송의 부모와도 같은 존재”라면서 “앞으로 개국 정신에 따라 진흥원과 종단을 잘 모시고 방송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BBS불교방송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동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총무원장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9대 선상신 사장 취임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t0179@hyunbul.com

중앙신도회, ‘SNS 활용 포교’ 나선다

9월 19~20일 행복바라미 워크숍서 관련 부서 발족

1000명까지 통신원 확대

전국 불자들이 민원 접수도

전법회관 1층 카페 활용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이 SNS를 통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포교에 나선다.

중앙신도회는 9월19~20일 대전 K-WATER 교육원에서 ‘2015 행복바라미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앙신도회 SNS 조직운영팀’을 발족했다. 중앙신도회 SNS팀의 총괄책임은 윤재우 중앙신도회 대변인이 맡기로 했으며, 행복바라미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통신원으로 참여한다. 다음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신회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활동을 공유한다.

중앙신도회 SNS팀은 SNS를 활용해 포교와 전법, 호법, 교육 등 불교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펼치며, 전국 불자들의 민원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위기에 놓인 불자가정에 대한 상담과 청소년 지도 등 사회역할 수행도 참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법률·노동·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팀장들을 현장에 파견해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앙신도회는 향후 중앙신도회 SNS팀

통신원을 1000명까지 확대해 전국의 신도조직을 SNS 그물망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신회SNS팀은 SNS를 활용해 계획이다. 특히 전국 불자들의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받아 해결책 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 불자 기업 및 교계 사회적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 연계 등 신도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신도회는 종로 전법회관 1층에 바라미 카페를 열고 오프라인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바라미 카페는 SNS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연동하며 △불자 커뮤니티 공간 제공 △소규모 전시·공연·교육을 위한 공간 대여 △교육 및 전문상담을 위한 공간 지원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세계불교포럼

24일 중 무석서

분과토론·TV논단 등 진행

전 세계 불교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사회를 이끌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는 세계 불교포럼이 10월 24, 25일 양일간 중국 무석서 열린다. 제 4차인 이번 세계불교포럼은 ‘함께 원력으로 동참하며, 서로 교류하여 거울삼자(同願同行 交流互鑒)’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3년마다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지도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불교포럼은 개막식에 이어 △대회발언 △전제승단 발우공양 △기념촬영 △분과토론·TV논단·인터넷 논단 △만찬 △주제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대표단의 발제는 동국대 이사장 일민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 박창환 금강대 교수 등 5명이 맡는다. 김주일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중정 흥산 현불

중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1) 입종 구비서류

입 종 안 내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중도님을 모십니다.